

# 2007 시·도지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전기현 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정해년 한해에도 협회는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도 협회를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양봉업을 충실하게 수행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농업·농촌과 우리 양봉산업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대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양봉인 여러분들도 스스로 변화해 나간다는 신념과 각오로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한·미FTA 협상에서는 타 농산물보다 월등이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의 소비자들은 국민소득향상에 따른 웰빙 붐으로 기능성식품을 선호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식품의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의 많은 노력과 지혜가 더욱더 필요로 할 때입니다.

최근 항생제파동과 사양꿀 생산농가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비자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품질관리제도 업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양봉농가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식약청에서 고시한바와 같이 항생제 9가지가 추가됨에 따라 협회는 항생제기기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양봉농가 여러분께서도 과거의 관행은 버리고, 절제된 항생제 사용과 친환경 사양관리를 통해 항생제문제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양봉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협회에서는 2008년부터 벌꿀 홍보를 위해 임의 자조금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에 더해 시 군 단위별 벌꿀의 브랜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법안을 마련 중에 있고 이 법안이 마련되면 벌꿀 소비촉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벌꿀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펼쳐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고 우리 양봉산업이 더 한층 발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밀원수 식재 사업이 금년 전반기까지 시행되었으나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하여 금년 후반기부터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회장인 저로써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차선책으로 정부와 산림청과 협의하여 정책적인 밀원수 식재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현재 우리 양봉산업에 찾아온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어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끝으로 올 한해 너무 많은 고뇌와 고통을 잘 이겨내신 우리 양봉농가 회원 여러분 가정에 무자년 새해에는 안녕과 가업의 번창이 있기를 기원하며,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양봉농가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꿀 풍년을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